

가와구치코 호수 - 박물관과 갤러리

가장 깊은 곳이 14.5m 인 가와구치코 호수는 야마나카코 호수와 비슷하게 수심이 얕은 호수로, 야마나카코 호수와 마찬가지로 수상 레크리에이션의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. 가와구치는 한자로 ‘河口’라 쓰는데 이름처럼 가와구치코 호수에는 6 개 이상의 계류가 흘러듭니다. 가와구치코 호수의 북동쪽 호안에는 미술관과 박물관, 화랑이 다수 들어서 있으며 모두 버스로 갈 수 있습니다. 후지 5 호 호수에 놓인 유일한 다리인 가와구치코 호수 대교는 북쪽의 우부야가사키 곳과 남쪽의 가와구치코 허브관 주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.

동서로 펼쳐져 있는 가와구치코 호수에서는 북쪽 해안을 따라 다수의 지점에서 후지산의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우부야가사키 곳은 수세기 동안 호수면이 잔잔할 때 후지산의 모습이 아름답게 반사되어 보이는 거꾸로 후지산(사카사후지)의 명소로 알려졌습니다. 우부야가사키 곳에는 사진가 오카다 고요, 하이쿠 작가 마쓰오 바쇼, 그리고 작가 나카무라 세이코 등 이 지역의 이름을 높인 예술가들의 기념비가 다수 세워져 있습니다.

역사와 민간 전승

지역 일대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864 년의 조간 대분화(貞觀大噴火) 이후, 후지산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와구치아사마 신사가 세워졌습니다. 이 신사는 가와구치코 호수 북동쪽 호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는데, 가와구치코 호수 남쪽에 당시의 분화로 생긴 화성암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후 화산 활동에 의한 용암류를 피하기 위해 이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

또 하나 주목할 만한 신사는 후지 5 호 유일한 섬이자 가와구치코 호수의 거의 중심에 위치한 우노시마 섬에 있습니다. 이 신사는 인근 신사의 민간 전승에도 가끔 등장하는 음악과 물과 애정의 여신, 벤자이텐을 모시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기 향로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신사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.